지상백고좌

서울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베푸는 마음 가지면 만 가지 소원 이룬다”

12면에 이어

이후 스님은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1994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거나 새로 건립했다. 현재 인덕원은 20개가 넘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종사자만 1000여 명에 이르고, 시설 이용자만도 연간 1000만명이 넘는다. 매년 예산으로 약 500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초불교적’ 규모다.

성운 스님은 “인덕원의 인(仁)은 사랑과 자비요, 덕(德)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덕원을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운 스님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모습.


성운 스님이 삼천사 마애여래입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끝이 없는 배움의 길과 회향

스님의 방에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것은 잡지 〈타임(TIME)〉이었다. 스님은 〈타임〉지와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했다.

“시대에 맞게 부처님 법을 전하려면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파벳도 모른 채 〈타임〉지를 보며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요.”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직후였다. 스님은 불교가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대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걸망을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어른스님들은 세속 공부를 만류하던 시절이었다. 해인사 일타 스님도 똑똑한 성운 스님이 수좌가 되기를 당부할 정도였다. 그러나 스님은 불교가 중생들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울에서 검정고시부터 시작해 만학도가 되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계사 화장실에 딸린 창고에서 지내며 경비도 보고 화장실 청소도 도맡았다.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타임〉지를 읽었어요. 그걸 읽으며 세계정세에 눈을 떴지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흐름을 파악하고 불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타임〉지는 세계 문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주문이었습니다. 저를 이룬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라면 세상을 알게 한 것은 〈타임〉이었습니다.”

스님의 꾸준한 공부과정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경찰서와 보호소를 찾아갔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스님은 은평구사원연합회장을 겸임하면서 1995년부터 매년 호국충혼법회를 통해 40~50명의 서울 지역 청소년에게 30여 년간 약 1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재)삼천사성운장학재단을 설립해 은평구 거주 동국대 학생 30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배움을 갈구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회사원 등 직장인에게 자기개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의정부 신흥대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평구에 강의실을 마련,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50여 명을 배출시켰다. 동국대 석좌교수로 출강해 노인복지분야 석·박사 논문 제자 73명을 배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미래인재 양성에도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복지철학은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아쇼까왕의 복지사상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1990년대 이후 불교사회복지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교복지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이 빠져 있음을 인식하고 인도 고대 아쇼까왕의 통치이념에 나타난 복지사상의 배경과 내용을 연구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아쇼카왕의 복지사상 연구’는 우리나라 불교사회복지 연구에 있어 기준이 됐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수행자로서 ‘노인복지 현장경험론’(2003년), ‘사회복지실천 현장론’(2004년), ‘노인복지론’(2007년), ‘사회복지현장실습’(2007년), ‘뉴 가이드 노인복지론’(2008년), ‘불교사회복지론’(2010년) 등을 통해 복지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스님 방에는 월탄 스님 사진도 있다. 성운 스님은 2022년 8월 스승 월탄 스님을 보내드렸다. 1969년부터 50년 넘게 모신 스승과의 이별은 쉽지 않았을 터. 월탄 스님은 불교정화를 위해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할복한 육비구 중 한 분이다. 월탄 스님은 “당시 대법원장 방에서 ‘우리는 비구승인데 불법(佛法)에는 대처승이 없다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히고 할복을 단행했다”면서 “불교를 위해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지닌 희망자를 모집하여 참여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대승보살행, 진정한 사회복지의 길
중생제도, 중생복지가 수행의 목적
자비로 고통 속 중생과 함께 해야

“은사스님은 정법에서 어긋나면 뇌성(雷聲) 같은 사자후(獅子吼)로 엄한 아버지처럼 경책하셨지만, 평소에는 따뜻하고 자상한 미소로 격려해 주시던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세세생생(世世生生)의 원력을 금생에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신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 생에는 서원(誓願)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님 방에는 성철 스님의 글씨 ‘불기자심(不欺自心)’도 있었다. 성운 스님의 좌우명이 바로 ‘불기자심’이라고 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죠. 청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청정한 자리에 있으면 생로병사(生老病死)도 없어요.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스님의 불교와 수행, 수행과 복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은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다른 표현입니다. 수행의 완성과 중생복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또한 이고득락(離苦得樂), 발고여락(拔苦與樂)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사회복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나눔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풀면 언젠가 그 베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조건 없이 주니까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조건 없이 주면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조건 없는 자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 사상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이며, 복지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 자체가 중생복지라고 강조했다. 수행하는 목적 역시 중생제도와 중생복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가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전개하는 활동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보편적 자선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종교 가운데 특히 불교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존엄과 평등사상에 이념과 가치를 두고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복지활동을 실천했어요. 과거 전통사회와는 달리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로 생겨난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불교가 주체가 되어 불교의 가치규범이나 원리, 사상 등을 기반으로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불교사회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사회복지의 선구자, 아니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선구자로 존경받고 있는 성운 스님은 주저함이 없었다. 스님의 말씀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됐다. 긴 시간 스님 말씀을 듣고 마당에 나오니 무언가 모를 청량감이 느껴진다.

“복덕을 얻으려거든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니 모든 생명들을 위해 이익되게 하면 복덕은 스스로 돌아옵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라.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나니 베푸는 마음을 늘 가지면 만 가지 소원을 이룸이니라.”

경내에 세워진 스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왔다. 다시 산을 내려가려는 중생에게 전하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육취윤회경〉에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되고, 의약을 보시하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등불을 보시하면 항상 눈이 밝아지게 되며, 음악을 보시하면 목소리가 아름다워진다. 침구를 보시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보시하면 항상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번뇌의 중생계가 다하는 날을 기약할 수 없지만 고통의 바다 아닌 곳 또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혜와 자비로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무한한 자비심과 차별 없는 평등심으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유철주 / 작가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